# 생명 원천 '영산강' 따라 반추해본 80년 文學인생

## ●소설가 문순태 시집 '타오르는 영산강' 출간

"영산강은 마지막 내 삶에 무한한 상상력을 불러일으켜줬다. 오래전에 읽었던 팀 보울러 소설 '리버 보이'에서 손녀 제시가 만난 소년(소년 시절의 할아버지)이 된 기분이기도 하다. 죽음을 앞두고 고향에 있는 강의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해 할아버지를 따라 온 손녀는 신비한 한 소년을 만나는데, 그 소년은 바로 과거의 할아버지였던 것이다. 나도 영산강에 온 후부터 소설 속에서 할아버지가 변신한 소년이 된 기분이다. 나는 영산강의 흐름을 통해 80 평생의 내 삶의 흔적들을 반추해 보았고 그 과정을 시로 표현해 봤다."

### 나주 영산포 '타오르는 강 문학관' 개관 기념
### 총 4부 구성…보고 거닐며 발견한 삶의 흔적

원로 소설가 문순태(86·사진) 씨가 나주 영산포 '타오르는 강 문학관'(나주시 예향로 3871-4) 개관을 맞아 시집 '타오르는 영산강'(문학들刊)을 펴냈다.

타오르는 강 문학관은 문 소설가의 대하소설 '타오르는 강'에서 영감을 얻어 나주시가 지난달 4일 개관한 문학관이다. '타오르는 강'은 1886년 노비세습제 폐지부터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까지 영산강을 무대로 펼쳐지는 민초들의 삶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그는 올해 봄 담양 생오지에서 영산포로 거처를 옮겼다. 이번 네 번째 시집에서는 18년 만에 생오지를 떠나 나주로 옮겨 온 후 영산강에 대한 소회를 시로 표현했다.

문 씨는 "무등산이 나의 생태적 고향이라면 영산강은 내 졸작 소설 '타오르는 강'의 고향이다"고 고백한다.

작품의 고향을 따라 영산강으로 옮겨 온 셈인데, 요즘 생명력이 넘치는 영산강을 통해 많은 영감을 받고 있다는 게 그의 이야기다. 또한 영산강의 흐름을 따라서 삶의 마지막 길을 걷고 싶다는 바람도 털어놨다. 그는 이것을 인생의 정리가 아니라 인생의 완성으로 생각한다.

"영산강을 따라 걷는다/갈 곳을 잃은 사람에게/강물은 길이 되고/동반자가 된다/강의 마음으로/낯선 길 따라 걸으며/때 묻은 시간 헹구고/헛된 욕심 흘려보내고 나니/원한도 미움도 물거품 되고/발걸음 바람처럼 가벼워진다/이제 서두르거나/미련 쌓아올리지 않고/강과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내 삶은 더 깊고 푸르다/강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날개 펴고 하늘에 올라/일곱 가지 무지개 빛깔/꿈을 쫓아가는 것"('영산강을 따라 걷다')

강은 높고 낮음이 없는 수평세상을 이루고 높은 곳보다 낮은 세상을 지향하며 비어있는 것들을 가득 채우는 속성을 지닌다. 문 씨는 종일 영산강을 바라보기도 하고 강을 건너고 영산강변을 거닐면서, 강의 흐름을 통해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하고 있다. 새벽에 일어나 영산강물 흐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기도 한다. 거대한 생명체인 영산강은 날씨와 바람에 따라 수시로 빛깔과 소리와 흐름의 속도가 달라진다.

대하소설 '타오르는 강'에서 주인공 웅보가 영산강이 우는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처럼 문 씨 또한 강이 우는 소리를 듣고자 강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 웅보가 들었던 것이 억울하게 죽은 노비들의 한맺힌 울음이었다면 문 씨가 들은 소리는 인위적으로 흐름을 막아 답답해서 토하는 영산강의 아우성일지도 모른다.

"눈부신 개화 물길 열었던 영산강/그러나, 등대 불 꺼진 지 오래/떼지어 찾아들던 고깃배들 사라지고/콘크리트 댐에 숨결마저 막혔다"('타오르는 영산강')

1부의 시들은 '새끼내 웅보 씨'처럼 소설 '타오르는 강'을 쓸 당시 느꼈던 시상들을 정리한 것들과 2024년 영산포로 이사 온 후에 쓴 시들이다. 2부 '홍어'는 세 번째 시집 '홍어' 이후에 쓴 홍어 시들이며, 3부 '시간의 끝'에서는 그동안의 삶의 흔적들을 돌아본 것, 4부 '5월의 그대'는 젊었을 때 써두었던 연시들을 엮어냈다.

한편 소설가 문순태는 1939년 담양에서 태어나 1959년에 '농촌중보' 신춘문예에 소설 '소나기' 당선, 1965년 '현대문학'에 시 '천재들' 추천, 1974년 '한국문학' 신인상에 소설 '백제의 미소' 당선으로 등단했다. 주요 소설집으로는 '고향으로 가는 바람', '철쭉제', '징소리', '된장', '생오지 뜸부기', '생오지 눈사람' 등이 있고, 장편소설로 '걸어서 하늘까지', '그들의 새벽', '41년생 소년', '소쇄원에서 꿈을 꾸다' 등이 있다. /최명진 기자

# 정유재란 7義士와 義兵…'다시 쓰는 구례 석주관전투'

## 구례문화원, 5차례 왜 대항한 구례의병 이야기 담아

호남 동부지역의 정유재란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책이 발간됐다.

구례문화원에서 펴낸 '다시 쓰는 구례 석주관 전투'(정동묵·문수현 지음)다. 이 책은 구례군 토지면 송정리에 자리한 석주관성을 중심으로 정유재란 당시 구례 사람들의 항일 투쟁사를 담고 있다.

총 5차례에 걸친 석주관 전투에서는 구례 현민 3천500여 명과 화엄사 승병 153명이 전사했다. 이들 구례 현민을 이끈 구례의병장은 왕득인·의성 부자와 이정익, 한호성, 양응록, 고정철, 오종 등 7의사다. 임진왜란 때부터 줄곧 구례를 지키던 현감 이원춘이 1597년 8월16일 남원성전투에서 싸우다 순절하자 왕득인이 의병 400여 명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이들은 섬진강과 인접한 외길을 타고 오르내리는 왜군과 2차례에 걸쳐 맞붙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이겼으나 1597년 9월 말 두 번째 전투에서는 패해 모두 전사했다.

이후 아들 왕의성이 아버지 왕득인의 전사 소식을 듣자마자 '복수'라는 깃발을 들고 다시 거병했다. 나이를 넘어 신의와 학문으로 서로 교류하던 구례의 5의사 역시 함께 거병해 석주관으로 모여들었다. 여기에 남원 의병장으로 호남 동부에서 신출귀몰한 게릴라전을 펼치던 조경남 역시 전략과 전술을 조언하고 전투에도 참여하는 등 가세했다.

또 책에서는 구례의 전투뿐만 아니라 임진왜란부터 정유재란까지 호남을 지키려던 고경명 부자의 금산전투, 황진의 웅치·이치전투, 김시민의 1차 진주성전투, 다시 황진의 2차 진주성전투, 이복남과 이원춘의 남원성전투 등 호남 의병장들의 역사적 전투까지 일목요연하게 서술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뿐만 아니라 구례에 살던 이순신과 구례현감 이원춘이 나눈 일촉즉발의 전황과 정세 이야기까지 수록했다. 전문 사진작가를 동원해 작품성 있는 비주얼도 곁들였다.

정동묵 작가는 "구례의 석주관전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전 현민이 들고 일어나 왜에 항거한 보기 드문 호남의 역사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 새로 나온 책

▲내 고향 흑산도 푸르다 지쳐 검은 섬=이주빈 저자

흑산도에서 태어나 유년기를 보내고, 도시에서 학업과 기자 생활을 마친 뒤 섬문화 다양성과 태평양 기후 위기 대응 일을 하고 있는 시인이 바다, 섬, 그리움 그리고 어머니를 주제로 노래한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정서적 뿌리가 돼주는 고향이 있다. 그러나 누구나 그 고향을 정체성으로 내세우며 살지는 않는다. 수도권에서 먼 곳일수록 지역 소멸의 속도가 빠르고, 사라지는 것들은 외면받기 십상이다. 시인은 이런 풍토 속에서 흑산도로 돌아가 마치 취약함을 정체성으로 삼으려 작정한 듯 고향을 배경으로 한 시 70편을 지어내 세상에 내보인다. /어른의시간·1만2천원

▲모우어=천선란 저자

외계 존재 진압에 투입된 어린아이들부터 비범한 능력이 있는 십대 청소년, 장의사 안드로이드,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살아가는 인간과 비인간동물까지 다양한 존재가 조명되는 이번 소설집에는, 사라진 존재를 구하고자 분투하는 이들의 쓸쓸하면서도 아련한, 그러면서도 뜨거운 내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씁쓸한 현실을 극복하는 서사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단 한 사람이 있음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천선란은 이 위태로운 세계에 기꺼이 파수꾼이 되고자 하는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한다. /문학동네·1만7천원

▲나의 인생만사 답사기=유홍준 저자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저자 유홍준이 30여년만에 산문집으로 독자를 찾아왔다. 문화유산 전도사, 문화재청장 등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는 500만부 판매의 신화를 쓴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작가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는 수십년 동안 베스트셀러 작가의 자리를 내려놓은 적 없는 유홍준의 글쓰기 비법과 그의 '문장수업' 이력을 낱낱이 공개하고, 신문 등 다양한 지면을 통해 발표해온 유홍준의 산문 중 백미를 엄선해 묶어냈다. 작가 스스로 '잡문'이라고 말하는 이 글들은 길지 않은 분량 속에서도 촌철살인의 메시지가 빛을 발하며 유홍준의 인간미 넘치는 매력과 특유의 입말을 살린 문체가 글에 윤기를 더한다. /창비·2만2천원

▲불덩이=이영림 글·그림

미동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고요하던 화산이 붉게 달아오르고 몇 번의 진동을 거쳐 폭발음을 내는 순간, 119 센터 상황실은 어느 때보다 바쁘게 이 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한다. 사이렌이 울리자마자 물표범 부대 대원들은 장비를 갖추고 화산 폭발 지점으로 출동한다. 너도나도 호수를 힘껏 잡고 물을 뿜지만, 소방차 가득 싣고 간 물만 가지고는 속수무책, 재난이 수습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대원들은 매년 반복돼 온 재난의 패턴을 파악하고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찾기 위해 치열하게 머리를 맞댄다. /웅진주니어·1만6천800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지국
· 중앙지국 222-8171 · 상무지국 453-2554 · 유동지국 222-8171 · 오치지국 261-9461
· 산수지국 224-4188 · 광천지국 374-2120 · 운암지국 529-3548 · 문흥지국 261-9462
· 학운지국 673-6836 · 진월지국 676-2726 · 용봉지국 261-1503 · 일곡지국 573-3200
· 화정지국 372-9140 · 봉선지국 673-6836 · 신가지국 954-1420 · 첨단지국 971-7374
· 금호지국 376-7153 · 백운지국 673-0123 · 양산지국 574-3745 · 치평지국 371-9584
· 풍암지국 603-0311 · 두암지국 266-1920 · 하남지국 951-9954 · 수완지국 955-0451
· 노대지국 674-3581 · 농성지국 362-4102 · 운남지국 952-1687 · 광산지사 944-0993

지방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나주지사 061)335-0005 · 보성지사 061)852-6644 · 무안지사 061)453-3645
· 동목포지사 061)278-0740 · 광양지사 061)793-6800 · 화순지사 061)373-7795 · 함평지사 061)322-0882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구례지사 061)782-4696 · 장흥지사 061)863-6800 · 영광지사 061)353-5133
· 신안지사 061)980-8300 · 담양지사 061)383-5566 · 강진지사 061)432-8899 · 장성지사 061)394-3636
· 순천지사 061)746-1600 · 곡성지사 061)362-5746 · 해남지사 061)535-5849 · 완도지사 061)555-0134
· 여수지사 061)651-6433 · 고흥지사 061)832-6290 · 영암지사 061)473-7151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